

Plato의 思想과 그 教育的 涵축성에 관한 斷片的 小考

한 기 태*

◇ 目 次 ◇

- I. 緒 論
- II. Plato의 本體論的 實在主義와 教育的 意義
 - A. 觀念論
 - 1. 存在
 - 2. 非存在
 - 3. 善의 觀念
 - B. 認識論
- III. Plato 教育思想의 斷片的 考察
 - A. 轉向的 教育觀
 - B. 優生學에 關하여
 - C. 男女同權과 女性教育에 關하여
 - D. identity로서의 個人과 社會에 關하여
- IV. 結論
- 參考文獻

I. 緒 論

“Plato는 哲學이요, 哲學은 Plato이다” 라고 Plutarch는 말했고, 西歐철학의 전통성의 특징은 그것이 Plato에 대한 一連의 附錄이라고할 수 있다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 교수, 교육학 전공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라고 A.N.Whitehead는 Plato를 평가했다.

Plato의 방대한 저서 중 특히 國家論은 그의 철학思想들이 드라마의 형태로서 거대한 철학體系를 전개시킨 學際的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思考와 행동영역에 있어서 방대한 "有機體의 연쇄체"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들어 Plato의 觀念論은 인간이란 한 形態이므로 모든 인간은 本質的으로 유대성을 가졌고 따라서 神의 우주적 父性과 인간의 우주적 同胞性의 思想을 낳게한 것을 들 수 있다.¹⁾

그의 思想的 意義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철학領域뿐만 아니라 政治, 社會, 心理, 倫理, 教育, 宗教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原理들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것에 있다. 예리한 통찰력과 先見之明으로서 그의 思想은 人生의 여러상황에 대한 보편적 호소력이 있고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개인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근본적 再檢討를 요구하는 超時代的인 적절성을 지닌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人生의 모든 分野에서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思索하고 명상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하여 대담한 탐구 精神과 자유로운 思索속에 학문적 정신의 기초를 구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해답이 질문이며, 질문이 해답이라는 변증법적 命題로 Plato의 思想이 한층 더 有義의 공헌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Thorson이 Plato의 저서를 意義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Plato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그 문제의 대부분에 대하여 問題를 提起했다는 데 있다"²⁾고 지적한 것은 타당한 적요이다.

Plato의 영향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세속哲學으로서만 일축할 수 없는 무거운 比重을 차지한다. 예를들어 칼빈자신도 人文主義思想이 그의 思想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是認하고 있으며 또한 칼빈자신이 지적하듯 그가 결코 Plato와 같은 古典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一般지식의 효능을 경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볼수 있다. 물론 그는 古典에 대한 聖經의 優位性을 주장하고 그 深奧性과 靈感性은 古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나 古典에 대한 識見을 인정하고 古典학문의 탁월성과 示唆性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권장했다.³⁾ 이러한 영향력의 理由中 하나는 Plato의 思想이 농후한 종교적

1) R. S. Brumbaugh, *Plato for the Modern Age* (New York : Corvwell-Collier Press, 1962), p.214.

2) T. L. Thorson(ed), *Plato : Totalitarian or Democrat ?*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63), p.2

3)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으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그 외 우수한 群衆들의 다른 작품들도 읽으라. 놀라울 정도로 당신을 매료하고, 즐겁게하고, 감동시키고, 매혹할 것이다. ... 우리는 세속작가들의 作品을 볼 때마다 그 作品속에서 빛나고 있는 놀라운 眞理의 빛을 통하여 비록 타락하고 온전함에서 부패하였으나 인간의 精神은 아직도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로 의장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T. McNe ll(Phil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 I. Book 1, 8:1, p.82, and Book 2, 2 : 15, p.273.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⁴⁾ 그의 中核的 思想 *ιδέα* 설은 公式的인 것으로는 表現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事物의 *ιδέα* 에서 시작해서 최후에는 善의 *ιδέα* , 즉 神自身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宗教的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Boman은⁵⁾ 사실상 Plato의 宗教的 정신은 聖經의 것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哲學에 表現되어있는 思想은 聖經의 것과 잘 비교할 수 있는 要素도 多分히 포함 한다는 見解를 표시했고, Jaeger⁶⁾는 "Plato가 哲學과 정신적 가치관의 보루로서 歷史에 있어서 神의 섭리가 유대인의 律法과 선지자에게만 啓示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書에서도 眞理에 대하여 異敎從의 지혜가(비록 그러한 지혜가 神의 啓示의 또 다른 면모라고 同一視하는 것은 아니나) 공헌한 사실을 인정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Plato思想의 종교적 要素를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Plato의 핵심思想과 흔히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思想의 국면들과 그 교육적 함축성을 斷片的으로 고찰하여 그의 思想意義와 교육적 意義를 음미하려고 한다.

II. Plato의 本體論的 實在主義

A. Plato의 觀念論

Plato의 핵심적이며 지배적인 哲學思想의 原理는 國家論에서 발견할 수 있는 觀念論이며 그의 다른 思想은 이것을 中樞로 전개되고 이것에 지배되어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哲學은 觀念論이라고 端的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Wild도 지적하듯이⁷⁾ 國家論은 어떤 구체적 狀況의 기술이 아니고 행동의 指針으로서 형성된 목표나 기준의 윤곽이라는 의미에서 觀念개념은 理解되어져야할 것이다.

Plato는 國家論에서 그의 觀念論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더 정확하게 完全히 提示한 것으로 보아진다. Ionia의 自然철학에서 시작되는 모든 회랍의 철학자가 存在 및 非存在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교육적 意義를 導出할 수 있다.

그에게있어서 객관의 세계는 세가지 領域으로 분류되고 있다.⁸⁾

4) F. M. Cornford, *The Republic of Plato* (New York and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158 note 참조.

5) T. Boman,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m* (植田重雄譯) (東京 : 新敎出版社, 1959), p.82.

6) W. Jager, *Earl Christiani'y and Greek Paidei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35.

7) J. Wild in T. L. Thorson, *op.cit.*, p.109.

8) J. G. Frazer *The Growth of Plato's Ideal Theory* (New York : Russell & Russell, 1967), pp.71, 72. 78 이하 참조.

- 1) 존재하는 것 (τὸ ὄν)
- 2) 존재하지 않는 것 (τὸ μὴ ὄν)
- 3) 동시에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 따라서 1)과 2)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ἅμα ὄν τε καὶ μὴ ὄν... τὸ ἀμφοτέρων μετέχον, τοῦ εἶναι μὴ εἶναι)이다.

이 객관적 領域에 해당되는 세가지 주관적 상태 또는 精神機能으로서,

- 1) 존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知識, (γνώσις, 또는 ἐπιστήμη)
- 2)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無識, (ἀγνοσία 또는 ἄγνοια)
- 3) 중간영역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臆見(δόξα)이다. 이 영역은 감각의 세계로서 아름다운 것, 큰 것, 무거운 것, 등등의 無數한 것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臆見으로서 無識보다는 월등하나 知識보다는 열등한 정신 기능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란 γνωστόν (known)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ἄγνωστον (unknown)이고, 그 중간 것은 δοξαστόν (seemed)이다.⁹⁾

1. 存在(τὸ ὄν)

Plato에게 존재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所與되고, 그 내용을 수반하는 세계는 思惟의 對象이 된다. 그에게 있어서 사유의 목적은 진정한 존재자를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는 存在를 두가지 주요단계로 識別하였다.¹⁰⁾ 이 두 단계는 각각 두 部分으로 나뉘어진다. 첫 주요한 단계는 인간에게 直接주어진 것, 즉 우리가 감각에 依해 파악할 수 있는 것, 감각적 存在(ὄρατόν γένος), 즉 인간, 동식물, 사물일반이다. 이것들은 감각적 事物로서는 어떤 種의 실재, 즉 하나의 存在를 가진다. 그러나 감각적 事物은 극히 적은 얼마의 실재 밖에 소유하고 있지않은 그림자 또는 映象에 불과하다. 可視的 事物과 그 映象은 존재에 있어서의 첫 주요한 단계의 生成(γένεσις)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부분의 特質은 生起와 消滅이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變化, 推移되고 영원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太陽은 빛으로 또한 모든 감각 중 가장 價値있는 視覺에 依어 事物을 파악하게하는 것을 可能케한다. 또한 太陽은 모든 生命과 감각적 존재의 원인이며 원천이다. 太陽은 可視的인 變化하는 세계에 生命을 주고 실재를 부여하는 原理인 것이다.

정신적인 예지적 세계(νοητόν γένος)는 本質的으로 보다 高度의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는 아무런 變化나 生成이나 推移되는 것이 없는 존재의 왕국, 실재(οὐσία)의 세계인 것이다. 이 最高 존재의 단계도 역시 두 部分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낮은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數學的인 실재의 세계이며, 이것은 특히 數學에 內在하는 諸法則이 형

9) F. M. Cornford, op. cit., p.222 비교.
 10) Ibid., pp.219-220. W. Jaeger, Paideia :The Ideals of Greek Culture, Vol II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pp.288-291.

성하고 있는 幾何學적 도형과 數의 세계이다. 數學이란 Plato에게 있어서는 自體目的이 아니며 “정신의 全狀態에 혁명을 일으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은 실재에 도달하는 準備教育(προπαιδεα)인 것이다. 그것은 감각적인 知覺과 형상을 초월하여 실재의 인식에 인도하게된다.¹¹⁾

인간세계에서 超감각세계의 美에 가장 인접한 것은 幾何學의 美이며 Plato에게 있어서 幾何學이란 보이지않는 永遠을 暗示하는 감각적인 형상인 것이다. 물론 幾何學은 경험적 세계에 속하지만 感覺性을 배재하여도 可視的인 對象일 수 있다. 순수한 形成(점, 線, 三角등)은 最高의 의미를 가지는 감각적인 形式이지만 Plato에게 있어서 形式은 영원성을 豫感하고 파악하기위한 媒介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思惟하는 영원성이란 어떤 존재자 空間的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理解된다.¹²⁾

幾何學에 依해서 인간은 地上에 있어서의 最高의 존재를 인식하고 진실의 존재, 즉 神的 존재까지도 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Plato의 이러한 사유배경에는 회랍인이 “눈의 사람” (Augenmensch)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觀照의 중요한 意義를 중시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lato의 사유는 可視的인 존재에서 출발하는 눈의 사유(Augendenken)인 것이다. “본다(εἶδον)라는 사유의 特質에서 눈에 보이지않는 존재, 감각이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를 보아야하는 것이며 이것 역시 視覺, 直觀, 觀照이며 Plato思想의 최고봉인 ἰδέα 說은 이러한 視覺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¹³⁾ 인간이 ἰδέα 를 直觀的으로 사유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영원과 結合되는 것이다. 이러한 Plato의 創見은 교육에 대한 함축성을 內包했고 현대 視聽覺 교육의 중요성은 그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위에 形而上學的 기초를 수립한 그 기여에 연유되어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그런데 最高의 存在의 단계를 形成하고 있는 것은 참 存在者인 ἰδέα 이다. Plato는 우리가 精神또는 精神世界라고 부르는 것은 確實히 신뢰할 수 있다고 一般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物質的인 세계의 부속물이라는 커녕 도리어 이 可視的인 세계야말로 確實히 신뢰할 수 있는 實在的인 永遠한 精神世界의 부속물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實在性을 부여하는 原理는 善의 ἰδέα 또는 神인 것이다. 太陽이 동.식물에게 주는 生命(γένεσις) 有機體에 實在性을 주는 것과 같이 神이나 善의 ἰδέα 는 모든 참된 存在의 源泉이다. Plato는 “그러므로 認識하는 자에게는 認識되어지게 되는 것은, 善에 依해서 주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存在와 本質도 善에서 온다. 善은 存在가 아니고 도리어 價値에 있어서나 能力(δύναμις

11) 久保勉, プラトンの 國家篇 (東京 : 岩波書店, 1949), p.184.
 12) T. Boman, op. cit., pp.254-255 참조.
 13) Ibid., p.315.

있어서도 存在의 彼岸에 초월하고 있다...”¹⁴⁾고 한다.

여기에서 모든 存在는 靜止의이며 調和的의이어서 모든 高次元의인 존재는 變化없이 불멸한다. 그럼에도 實存하는 모든 것 사이에는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 어떤 사물이 한층 더 근원적이며 정신적일수록 더 많은 存在性을 가지고 더높은 價値를 가진다. 즉 最高의 存在와 美 自體와 眞 自體와 善 自體를 가진다. 善은 美와 眞이며 따라서 美와 眞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善의 存在 즉 神의 存在는 最高의 存在인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神은 만물의 尺度이며 (神은 善이기때문에)善의 觀念은 現像世界의 觀念이 아니며 그 自體가 完全한 형태로서의 善인 것이다. Theaetetes에서 Plato는 ἀρετή (善)에 依한 哲人의 生은 “神에 同化하는 것” 이라고하며 이것은 Plato의 教育思想의 가장 高尚한 表現이 된다. 따라서 善의 觀念과 哲人의 教育과의 聯關性은 가장 위대한 주제내용(the greatest subject)이 된다고 말한다.¹⁵⁾

現象世界의 半은 ἰδέα 의 묘사와 半은 그 묘사의 묘사로서 성립되어 있고 可變的, 推的의이며, 永遠의 存在者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그 實在性이나 힘이나 價値를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Plato의 存在의 영역, 즉 감각적 존재(δρασόν γένος)의 세계와 정신적인 예지적 세계(νοητόν γένος) 즉 實體(ουσία)의 세계는 生成하는 것을 對象으로하는 時間範疇의 학문에서 思考하는 주체가 자기의식에 의해 어떠한 確實性에 도달하는가를 問題視하게 되는 것과, 存在者또는 객체적인 것, 불변적인 것을 전제하는 空間範疇의 學問에서 사유하는 者가 어떤 直觀에 의해 의식되는 眞理에 대하여 질문하는 특질을 갖게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세계에서 最高의 存在者는 완전한 힘이며 그것은 最高의 形式이나 本質(Supreme Form 이나 Essence)에 發現된 善의 觀念이며, 이것은 定義할 수 없는 啓示로 생각되어지고 있다.¹⁶⁾ 따라서 Plato는 國家統治의 진정한 適任者를 暗黑에서 光明으로 誘導하는 方法은 무엇을 教授할 것인가라는 問題라고 提言하면서 그것은 精神을 生成하는 것에서 實在하는 것으로, 可視的인 것에서 不可視的이며 永久의인 것으로 끄는 힘을 가진 것이라야한다¹⁷⁾고 提起한다.

14) F. M. Cornford, *op. cit.*, p.220. “... yet he(the Sun) is not the same thing as being, but even beyond, being, surpassing it in dignity and power.” P. Tillich의 “Ground of Being” 개념을 비교. E. Frank는 神의 存在를 superexistence 또는 nonexistence을 넘어선 Transcendence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Plato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Religious Truth*,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p.44 참조.
15) W. Jaeger, *op. cit.*, pp.286-287.
16) F. M. Cornford, *op. cit.*, p.212.
17) 久保勉, *op. cit.*, p.108.

2. 非存在(τὸ μὴ ὄν)

Boman에 따르면,¹⁸⁾ Plato는 非存在의 분석을 통하여 Sophists의 기만, 논리적 허위의 가면을 폭로시킴으로써 그들의 모든 오류를 끝까지 추구하고 최후에는 궁극의 신비적 은신처인 非存在(τὸ μὴ ὄν)의 영역에서 그들을 포착한다. Plato는 非存在者와의 비교로서 존재자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인식에 도달하려고 했다. 존재자도 많으나 비존재자 또한 무수히 있다. 그 理由는 非存在者는 단순한 존재자의 否定이라기보다는 어떤 實在性을 갖지않고 또 가질 수도 없는 모든 表象을 포함하고있기 때문이다. Plato에게는 非存在者는 假想이나, 허위, 착각의 영역인 것이며 여기에는 奸巧한 것, 기만적인 것이 숨어있고, Sophists들을 魁변으로 몰아부치는 도피소가 있다. 이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이 영역을 철저히 탐구하여 非存在者들의 본질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非存在者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種의 實在性, 즉 非存在라는 實在性을 가진다. 非存在가 있다는 것은 다만 存在의 否定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否定에서 어떤 肯定도 연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때문에 크지않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작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中間크기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非存在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실재를 가지지 않다는 意味가 아니고 진정한 존재자들의 실재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존재자란 것이 다른 어떤 他者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他者는 바로 假像이며 허위인 것이다.

非存在者는 非存在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존재자의 대립자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와는 別個의 것이며 전혀 別個의 存在者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현존재(Desein)의 실재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존재자에서 출발한다면 “전혀 別個者”는 Sophists들이다.

더 나아가서 Boman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세계에 있어서 존재자와 비존재자, 인간의 表象에 있어서 현실성과 假象性, 인간의 사유行動에 있어서 진리와 오류, 언어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부정확성이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상호교차되어 있다. 그림자는 빛과의 관계에 있어서 非光(Nicht-Licht)이며 빛의 반대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때문이다. 어둠은 無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存在하기때문에 존재한다. 그런데도 어둠은 빛의 非存在者인 고로 빛과는 전혀 別個의 것으로 빛의 存在에 관여하는 것이다.

허위, 기만, 착각, 공허, 무등은 참 존재자가 아니기때문에 아무런 實在性을 가지고있지 않고, 따라서 非存在(τὸ μὴ ὄν)으로써 表現할 수 있다.

非存在개념의 맥락에서 본 Sophists에 대한 Plato의 視覺을 善과 惡, 빛과 어두움의 존재처럼 Jaeger는 역설적으로 해석해서 人間精神史上에서 Sophists는 Socrates또는 Plato와 꼭같이 필요했던 하나의 現象으로 그들이 없이는 Socrates나 Plato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고

18) T. Boman, *op. cit.*, pp.85-87 참조.

주장한다. Plato 당시의 교육목적은 국가봉사를 위한 教育으로, 지식의 힘을 구사하는 것으로 교육의 理念을 정립하려한 것이었다. Sophists의 교육목적은 최초부터 민중의 교육이 아니고 민중의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어서 그들의 對象은 정치인이 되고 점차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웅변, 연설, 그리고 수사학 교육은 언제나 國家와 國益에 관련되었던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정신 교육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成就하기위해서 극히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했고 같은 교육문제에 對하여 根本적으로 Plato와는 다른 解答을 提示했던 것이다. 그들은 비록 知性文化와 그것을 생산하려는 교육예술의 창시자들이었지만 形式的이며 事實的 教育을 넘어서 보다 깊은 國家와 道德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들은 眞半(half-truths)을 가르치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으며 Plato는 그러한 觀點에서 Sophists의 體系를 비판한 것이다.¹⁹⁾ 그렇게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曲解하여 회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따라서 眞理와 虛偽의 음연한 限界를 除去해버린 것이다.

3. 善의 觀念

Plato의 國家論에서 발견될 수 있는 또 다른 두가지 특징은 第6卷과 第1卷에서 볼 수 있는 觀念의 世界에서의 優位性이 善의 觀念으로 귀속되어있다는 사실과 第10卷에서 善의 창조는 神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Plato의 창조사상은 物理的, 자연과학적 영역이 아니고 形而上學的, 宗教的 영역에 속한다)

누구나가 共認하듯이 Plato의 철학 중 가장 현저한 *!δέα* 를 추출해낸다면 그것은 善의 觀念이다. 어떤 意味에서 이 價値原理는 그의 철학에 있어서 모든 지식탐구의 目標라고도 할 수 있다.²⁰⁾

Plato에게 있어서 善의 觀念은 모든 지식과 眞理와 존재의 근원이며 그 自體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 位階보다도 월등한 것이다. 善의 觀念이란 마치 “正午의 태양”이나 位階體制의 絶頂形態, 觀念들에 반영된 善의 公同원인이나, 또는 實在을 단일적인 질서있는 體制를 만드는 형태와 같은 것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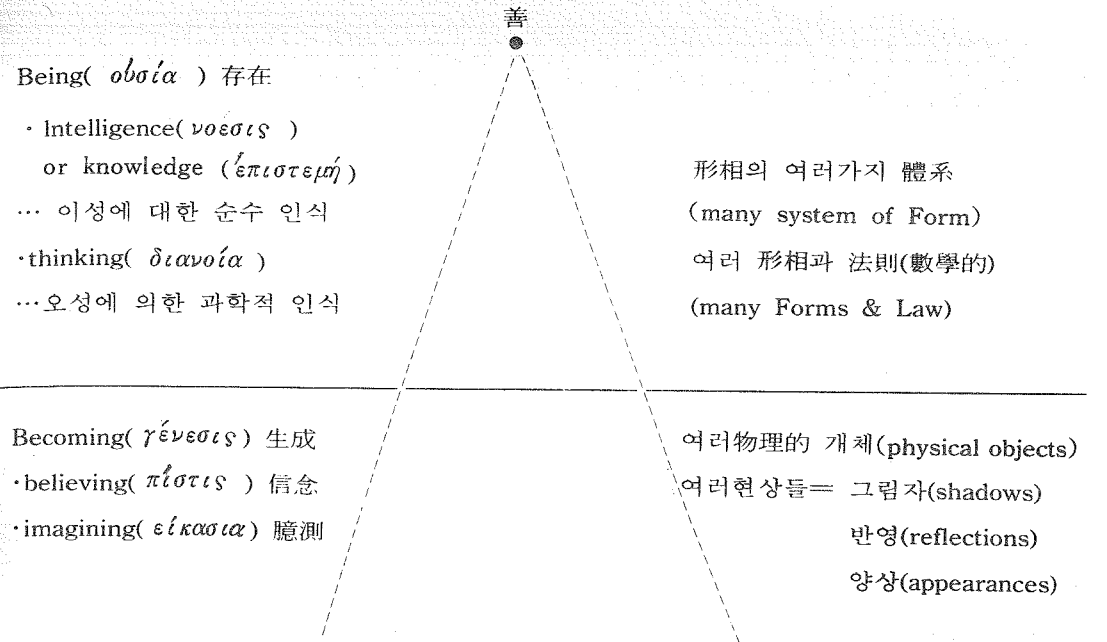
하나의 物理的 個體는 여러 樣相 (appearances)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유형이나 法則의 단일형태는 많은 개별적인 보기들(instances)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면 萬有引力의 法則에서 많은 물체들을 相互牽引하는 例를 볼 수 있다. 많은 形相과 法則은 그 自體들이 하나의 최고의 형태를 지닌 單一體系의 一部이며, Plato의 思想에 있어서는 眞, 正, 美로 인도하는 통로들은 궁극적으로 “善”에 귀착하게 된다. 이것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²²⁾

19) W. Jaeger, *Paideia : The Ideals of Greek Culture*, Vol.I.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pp.288 - 293.

20) W. Jaeger, *op. cit.*, Vol II, p.288.

21) R. S. Brumbaugh, *the Philosophers of Greece* (New York : Thomas Y. Crowell, 1964), p.157.

22) *Ibid.*, p.158. F. M. Cornford, *op. cit.*, p.222 참조.



따라서 人間은 언제나 무엇을 위해 사는 存在, 환언하면 하나의 善이 있고 어떠한 目的이나 理想없이 살 수 없다는 Plato의 目的論은 이와같은 “善의 觀念”에서 完結된다. “善”이란 모든 目的이나 理想이 귀결되어야할 terminus ad quem이며 궁극적 상태이다. 여기에서 *λογός* 는 人間과 自然界에 作用하는 사물의 本質에 관한 궁극적인 假定인 것인데, 이것은 個體요소를 配合하고 조화시키고 통일하는 하나의 原理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Plato에게 있어서 *λογός* 는 目的理想과 함께 作用함으로써, “善”은 道德性的의 궁극적 상태, 우주 理解의 궁극적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 目的論的인 理想으로서 “善”은 宇宙와 社會와 個人을 지배하게 된다.²³⁾

Plato는 神이란 表現을 直接 사용하지 않으나 그에게 善이란 神과 同一視되는 것이며, 만일 神 그 自體가 善이라면 人間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ἀρετή* 는 神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²⁴⁾ 男女教育의 機能에 對한 그 關係는 靈魂의 知識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것은 善에 대한 知識이다,

B. Plato의 認識論

23) 久保勉, *プラトンの國家論*(東京 : 岩波書店, 1949), p.174.

24) W. Jaeger. *op. cit.*, p.290.

Plato는 觀念論, 즉 善의 觀念을 그의 인식론에 근거를 둔다. 그에게 있어서 知識은 충분하고 완전한 理解이어야 하고 단순한 本能的 信念이어서는 안된다. 知識은 Plato에 따르면 信念이 아닌 理性에 근거를 두어야하며 理性에 依해서만이 生産될 수있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知識을 획득하게되는 것인가? 그 知識이 善의 知識이라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德을 획득하는 문제에 관련된다. Socrates의 原理에 따른 어떠한 形而上學的 推論을 한다고 하더라도 Plato의 思想構造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기초를 기반하여 設定되어있는 것이며 따라서 Plato教育思想의 形而上學은 善의 觀念에 귀결되는 本體論이다. 따라서 實在란 인간과 人間意志에 관련되고 있으며 이로써 善의 觀念은 教育을 포함한 모든 인간노력의 自然的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善이란 知識의 目標이며 主觀的 臆見의 영역을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

Plato가 말하는 知識은 主觀的 知覺에 没入되기 쉬운 개념이 아니고 客觀的 眞理性을 주는 개념을 통한 知識이다. Theaetetus의 對話에서 그는 “知識이란 무엇인가?”라는 問題보다도, “무엇이 知識인가? 감각적 지각이 그것인가? 思惟의 眞性이 그것인가? 또는 사유의 眞性에 의견이 加味된 그것인가?”라는 問題를 다루었으나 그 背後에는 이보다 더 큰 問題가 潜在되어있는 것이다.

지각은 곧 知識이라는 Sophists의 代表的인 Protagoras의 立場에서 본다면 知識의 客觀性은 正體없는 不定者이며, 인간이 萬物의 尺度가 되어 客觀的 眞理의 相對性, 可變性, 萬物의 流轉性, 모순—一致性을 주장하는 知識이 된다. Plato 認識論의 重要性은 이러한 Sophist의 주장이 단순한 學說이 아니고 그 당시 社會의 現實임을 간파했다는 데 있다. 즉 社會의 實際人間은 自身の 경험以外에는 如何한 知識도 信奉하지않는 者이지만 그 經驗이 敎訓하는 것은 實利以外에는 眞實이 하나도 없다는 시사성이며, 그들 言動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 思想을 保障하는 것이다. 이 社會的 現實이 現實國家社會의 哲人인 존재(무용시되고 또는 절대시되는)와 關聯되어 Plato의 가장 切實한 問題가 되었고, 따라서 感覺的 知覺이 知識이라는 主唱에 對한 批判은 Sophist에 對한 (허위란 非存在이기때문에 그들의 허위의 知識性의 不可能論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分析의 비판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현실의 국가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연계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知識에 개관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란 단순히 精神속에 있는 *idéa* 가 아니고 精神밖에 또한 精神에서 獨立되어 그 自體의 實體를 가진 무엇인 것이다. Stace는 그 *idéa* 의 特徵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⁶⁾

1. 實質的이며 特性을 소유하고 있다.
2. 보편성이 있다.

25) W. Jaeger. *op. cit.*, p.288.

26) W. T. Stace, *A Critical History of Greek Philosophy* (New York : Macmillan, 1967), pp.177-190 참조.

3. 事物이 아니고 思想이다. 즉, 精神에서 獨立된 그 自體가 實在인 客觀적 觀念이다.
4. *idéa* 는 각기 統一性을 가지고 있다.
5. 모든 사물의 本質이다.
6. 불변하며 불멸하다.
7. 각 種類에 있어서 절대적 完全性이며 그 完全性은 實在와 同一하다.
8. 時空間밖에 存在한다.
9. 理性的이다. 즉 理性을 통해서만이 理解된다. 불멸의 것, 절대적인 實在는 直觀이나 어떤 種의 신비적 황홀감에 의해 理解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理性的 認知와 熟考에 의해서 理解된다. 따라서 眞理의 試金石은 영원한 觀念과 論理的으로 일관성있는 命題的 眞理에 근거를 두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Plato의 사상적 의의는 많은 문제를 提起한 것이라고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提起될 수 있는 問題는 Plato의 주장처럼 “만일 絕對的인 것이 理性이라면 사물과 觀念과의 關係는 무엇인가?”라는 問題이다. “만일 사물이 觀念의 복사물이며, 모방이고, 觀念에 참여한다면 사물은 어떻게 觀念에 關係되는 것인가?” “왜 그러한 복사물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어떻게 야기되는 것인가?” “만일 觀念이 唯一의 實在로 定義됨으로 自足性을 가진다면, 왜 對象속에 再生産될 必要性이 있는 것일까?” “神에 對한 세계와 人間과의 關係, 超感覺세계에 대한 感覺世界과의 關係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이러한 問題들은 Plato思想의 취약점들을 시사해준다. 물론 Plato는 흔히 여러 誤謬들을 犯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어 數學과 추상적 觀念에 심취되어 관찰과 경험의 價値性을 경시하거나 無視했고 입증되지않은 假定들로부터 얻어진 순수한 理論과 論理的인 結論들을 과도히 依支한 것 등이다. 이러한 비판은 當代의 Zeitgeist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간파할 수 있는 問題일 수 있으나, 변증학적 思考方式의 pattern이 實生活에 적용될 수 있고 客觀적 實在에 自動적으로 轉移될 수 있다고 본 假定 또한 Plato의 弱點이었던 것으로 思慮된다.²⁷⁾

이와관련되어 提起되는 問題는 그의 확고한 理性的 優越성과 自律性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Plato의 神話라고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것에 포함된 빈번한 은유, 우화, 설화등의 사용이다. 사실상 몇몇 비판가들은²⁸⁾ Plato는 신비가이며 그의 理論속에서 神話들은 그의 思想自體에 있어서 缺陷을 의미한다고 평한다. 哲學의 목적은

27) J. D. Butler, *Four Philosophies and Their Practice in Education and Religion*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1), pp.270-270 참조.

28) W. T. Stace, *op. cit.*, p.169.

詩人이나 신비가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眞理를 느끼는 것 뿐만아니라, 知性的으로 그것을 理解하는 것이다. 만일 Plato의 주장을 一貫性있게 따른다면, 哲學은 그 自體를 解釋할 수 있어야하며 知性에 依해 온전히 理解될 수 있어야하고 단순히 궁극적인 신비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다양한 思想表現의 方法論은 哲學者와 詩人 要素들의 配合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Plato는 理性的 主權을 다른 “타당성이 적은” 지식의 通路에 양보하지 않으나, 그의 理性과 知識에 대한 지나친 強調는 眞理의 實在에 도달하는 여러 通路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에²⁹⁾ 그의 취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tace는 Plato가 神話를 使用하는 것은 deus ex machina의 手段이라고 비판한다.³⁰⁾ 그러나 Plato의 立場을 옹호한다고 하면 은유의 使用이 不完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여러 귀절의 表現처럼 Plato의 表現은 더 適合한 解釋方法을 發見치 못한 것에 연유되어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성있는 說明일 것이다. Plato는 眞理의 深奧性을 명료화하는 問題의 困難性을 실감하고 은유를 借用한 것으로 推定된다.

III. Plato教育思想의 斷片的 考察

A. 轉向的 教育觀

Plato는 독단적인 “주입식 教育法”을 주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히 동굴의 은유에서 명백한 것처럼 Plato는 教育의 本質이란 얼마의 知識量을 정신기능의 질그릇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Plato는(Dewey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중의 知性에 信賴를 두지않았고 그의 상세한 教育계획은 사회의 모든 個人에게 평등한 訓練을 실시할 것을 眼目에 둔 것은 아니었다.

注入式 教育법이었다는 Plato에 대한 비판은, 그가 教育을 빛을 向한 方向轉換을 意味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진다. Jaeger는 “태양과 동굴”의 이미지에 대한 Plato자신의 해석은 知識을, 盲人에게 강력한 視力이 주어진 것처럼 無知한 영혼속에 注入되는 것이라는 通例의인 教育의 개념을 絶對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참된 教育은 영혼속에 잠자고 있는 能力을 각성시켜주는 것을 意味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로 모든 資質能力이 발달하고 성숙한다. 이 目的을 위해 教育의 목표는 인간정신을 부여받은 認知的 能力을 옳은 方向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Plato는 본 것이다. 이 目的을 달성하기위해

29) J. R. Royce, The Encapsulated Man (Princeton. N. J. : D. Van Strand, 1964), p.12 참조.

30) W. T. Stace, *op. cit.*, p.169.

知性과 정서적 素養을 지닌 精神과 人格의 발달을 위해서는 精神의 全的轉向은 근본적인 方向 전환을 필요로 하게된다. Jaeger는 Plato의 教育의 本質을 “轉向”(conversion)이라는 用語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Plato가 구사하는 用語들을 감안할 때 타당성있는 분석으로 간주된다. “전향”(conversion)은 Plato의 教育사상을 표현하는 特殊한 용어로 획기적인 것이다. 더 具體的으로 말해서 그것은 “전 영혼”(“the whole soul”)이 빛을 向해 方向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³¹⁾

Jaeger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같이 Plato의 教育사상은 外界로부터 強要된 注入式 教育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外界의 어떤 작용에 대하여 내부적 自發性의 변화와 變換의 方向의 設定을 內包하는 概念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Plato 教育론의 根本信念의 하나는 人間정신이란 受動的인 것이 아니고 能動的인 性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방법은 학습이 속박되지않도록 留意해야하며 其 理由는 自由人은 어떠한 學課도 노예적으로 學習해서는 않된다는 것이고, 더우기 強要主義, 注入式 教育을 단호히 배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方法으로 因한 지식은 決코 두뇌속에 보유되지않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自發性 傾向의 教育이념에 연관된 Plato의 또하나의 근본 理念은 人間정신의 모방인데 그것은 本質上 환경에 同化하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教師의 임무는 정신의 能動性을 沮害하지않고 有用한 자극을 주어 其 環境을 적절히 安排하는데 있다. 이러한 환경重視 傾向은 社會教育의 중요성에 極히 중대한 意義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³³⁾

B. 優生學에 關하여

Plato는 産兒規定이 통제된 국가에서 그 市民들이 一考의 價値가 있는 自然法則에따라 子孫을 生産할 것을 主張했다. 적절한 배우자의 思慮깊은 선택으로 因한 改良된 子孫들로 種族은 加一層 質的向上을 期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年令의 으로도 30才이상~55才이하의 男性, 20才이상 40才이하의 女性만이 生産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한다는 것이다.³⁴⁾

31) W. Jaeger, Paideia : The Ideals of Greek Culture, Vol.II.(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pp.295, 417 note 77 참조.

“Plato는 이 귀절에서 *περιαγωγή* (turning around, revolution)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Jaeger는 언급하고 있다. 그 외 Plato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μεταστροφή* (a turning from one thing to another), *περιστρέφειν* (turn about, turn round or away)등인데 이 모두가 天的인 善을 向해서 머리나 눈을 돌리는 視覺的 image를 表現하려는 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32) 久保勉, *op. cit.*, pp.83-84, 200.

33) *Ibid.*, pp.142-143 참조.

34) *Ibid.*, p.141 참조.

그러면 Plato는 가족제도를 合法的이며 윤리적 제도로써 비판했던 것인가? 기독교적인 視角에서나 近現代의 교육적 또는 도덕적 기준에 따른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Plato는 “정신 박약아”나 “신체 불구아”를 죽이거나 城內밖에 放置하도록 허용한 立場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集團妻子”에 대한 과감한 주장은 어떤 비판가들의 주장처럼 혼음이나 家庭과괴의 權장을 意味한 것은 아닐 것이다.³⁵⁾

Plato의 眞正한 動機는 그의 방대한 理想 國家論의 청사진을 감안할 때 全國家의 安寧을 위한 念願이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核 家族制度가 自己中心主義를 助長시키고 市民들의 단결심을 弱화시킬 것을 우려했을 지 모른다. 主된 理由는 極少數의 예외적인 理想的 哲人王에게 대한 期待를 비교적 큰 守護者(*φύλακες*)계급층에 둔 듯하다. Plato의 期待는 正常的 人間性의 제약성을 초월했으나 市民들의 가정에 對한 愛着心을 國家에로 轉移한 것으로 推定되며 Plato의 意圖는 가정의 파괴보다는 그 범위의 확산을 통해 國家를 “大 家族制度”로 形成하려는데 있었다고 해석된다. 잘 統治된 理想國家에서는 全國民의 共同體意識을 통해 喜怒哀樂의 共有와 全國民의 利益과 協助를 最大限 促進시키는데 있기때 문이다.

反面에 또한 人口 과잉통제의 必要성과 守護者 계급의 維持와 개혁의 필요성을 認識한 것도 타당한 理由이며 이 理想國家에 있어서의 그의 대담한 提案은 그러한 목표를 충분히 保障할 수 있는 計劃과 理論의 기반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렇게 볼 때 “集團妻子” 制度의 權장을 혼음과 同一視하는 것은 不完全한 理解일 것이다.³⁶⁾

C. 男女同權과 女性教育에 관하여

Plato는 女性의 均등한 의무와 책임외에 均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女性을 위한 教育의 동등권을 옹호함으로 當代를 초월한 數世紀 後를 展望한 先見之明을 보인 것이다. 그는 女性教育의 關心을 表明했고 女性들이 守護者계급의 배우자로서 뿐만아니라 守護者 自身 들이 되도록 教育方向을 提示했다. 女性들이 地域社會를 발전해나감에 있어서 창의적 公헌을 반드시 가정생활을 통해서 뿐만아니라라는 사실을 認定했다. 사실 Jaeger는 Plato가 當時 支配的이었던 思想 - 즉 女性은 先天的으로 임신, 육아, 가사의 제반활동을 위해서 존재 한다는 - 을 반박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Plato는 人間社會에서는 女性이 男性보다 힘 으로나 能力으로는 劣勢하다는 것을 是認했으나 本能的으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守護者계층의 義務를 감당치 못할 要因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男性과 同等權을 주장 하기위해 女性의 同一한 양육(*τροφή*)과 教育(*παιδεία*)을 고취했으며 男性과 同一하게 “音樂”과 “體育”에 대한 教育을 받아야하며 전쟁을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35) *Ibid.*, p.142 참조.

36) *Loc. cit.*

것이다.³⁷⁾ 확실히 女性은 여러국면에서 男性의 道德心을 形成하는데 公헌적 존재이며 女性이 無知하면 男性은 賢明할 수 없는 것이다. 教育, 文學, 宗教등의 영역에 있어서 女性은 男性의 同伴者이며 眞理에 있어서는 男性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Plato는 이러한 意味에서 女性平等 教育에 대한 강한 信念으로 女性교육을 提案한 先驅者인 것으로 보아진다.

D. identity로서의 個人과 社會에 關하여 (自我實現에 關하여)

個人과 社會 倫理에 關한 Plato의 關心은 正義로운 個人과 正義로운 社會와의 關係에서 具體化된다. Socrates가 딜레마로 생각했던 惡한 國家에 사는 善한 個人의 문제는 Plato의 國家論의 主題가 된 個人, 社會, 宇宙에 있어서의 正義, 즉 正義로운 個人이 결코 不義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될 國家를 수립할 것을 提起하게 된 것이다.

Barnett가 지적한 바와같이³⁸⁾ Plato는 個人과 國家를 identity의 關係에서 고려했다. 그에게 있어서 社會는 實在었고, 그속의 個人에게는 市民으로서의 義務가 부과된 것이다. Brumbaugh는 지적하기를 Plato는 國家가 個人을 埋没시키고도 언제나 올바른 社會的 有機體가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Plato에게 있어서 社會는 다음 두가지 局面에 있어서만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가졌는데 첫째로 社會는 개인이 자신의 人間本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며 둘째로 自然속에는 여러 國家들의 定義, 目標, 價値基準를 부여할 수 있는 한 國家의 형태가 存在한다는 두가지 局面이다.³⁹⁾

個人과 社會문제의 맥락에서 J.Wild나 J.H.Hollowell은 Plato가 全體主義에 反하여 民主主義 理想을 옹호했다고 변호하고 Thorson은 Plato는 民主主義者도 아니었고 全體主義者도 아니었다고 하나⁴⁰⁾ Plato가 個人과 社會와의 有機的 統一성과 社會가 個人에게 대한 義務들을 설정하려고 努力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Plato가 教育을 개인의 自我實現의 완성과 社會를 위한 進歩와 正義, 그리고 긴 眼目에서는 人類의 生存과 向上을 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⁴¹⁾ Brumbaugh는 “現代인은 社會가 모든 개인의 自我實現을 위해 均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Plato의 思想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유전으로 계승되는 貴族主義는 社會조직의 패턴으로서 이제는 수용될 수 없고, 노예제도는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고, 투표권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上流社會계층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만이 아닌 것이다.”⁴²⁾ 라고 언급하면서 Plato의 立場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社會적 理想과 개인적 自我實現의 理想은 언제나 相反되는 것인가? 라는 問題에

37) *W. Jaeger*, op cit., p.244.

38) G. Barnett, *Modern Liberalism* M. S. U. Syllabus, 1972, 참조

39) R. S. Brumbaugh, *op. cit.*, p.168.

40) T. L. Thorson, *op. cit.*, pp. 105~150 참조.

41) R. S. Brumbaugh, *op. cit.*, p.161.

42) *Ibid.*, p.170.

대해서 Plato는 사회란 단순히 분리된 개인 구성원의 集團으로서 구별되는 實在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서 國家가 市民에게 부과시키는 要求를 자의적이거나 완전히 因襲적인 것으로서 묵과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國家論에서 그는 個人과 社會의 이 두 형태는 반드시 相反되는 것은 아니라고 結論짓고 있다.⁴³⁾ 社會的 效率성과 個人的 德行이 符合되는 國家의 構想은 지나치게 理想的일런지는 모르나 만일 그러한 社會實現이 환상적이고 實在的으로 希望的 觀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希望的인 哲學的 發見일 수는 있을 것이다.

民主主義란 결코 完全한 思想體制는 아닐지라도 理想實現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희망과 理想은 個人的 向上과 社會的 進歩를 위한 鼓舞나 希求의 持續的인 源泉이며 Plato는 그 成就를 向한 계속적인 人間의 努力과 過程을 指目하는 方向標의을 提示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를 提起함으로서 社會와 個人的 自我實現 과정 역시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에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不可分의 것으로 보고 그 方向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以上에서 Plato의 핵심사상과 보편화되지 않은 몇가지 사상 측면들을 다루어 보았다. 여기에서 斷片的으로 고찰한 바와같이 Plato의 철학사상은 그의 교육사상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핵심사상인 觀念론과 인식론 모두가 理想國家의 存立과 그 社會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는 여러 계층의 市民에게 필요한 교육에 關聯되어있어 그의 심오한 思想構造는 결국 그의 교육사상을 기반으로 定立되어있는 것을 알게된다. 그의 핵심思想 뿐만아니라 여기에서 고찰한 몇가지 "雜學的"思想속에서도 역시 교육적 함축성을 배제할수 없고 교육의 중요성이 시사되었음이 明白하다.

그뿐만아니라 Plato思想의 고찰은, 기독교적 視角에서 보더라도 急變하는 現代社會가 高度화된 技術사회와 전문화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획득과 理解에만 狂奔함으로 보다 高次元的인 目的을 위해서 하나님에 人間에게 주신 理性과 지혜를 충분히 善用하고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듯 하다. 그의 思想은 이러한 時代에도 지혜와 명상의 美麗함과 찬란함의 活力素와 같은 新鮮美를, 機械화된 非人間化되어가는 社會에 加味시켜 再人間化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暗示해 준다.

그의 철학은 너무나 皮相的 양상(appearances)에 명상과 사상을 유지하려는 획일화된 社會에 하나님의 啓示를 통한 眞理와 知識의 眞相에 대한 명상과 지혜의 심오성과 필요성을 목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43) *Ibid.*, p.166.

參考文獻

1. Barnett, G, Mordern Liberalism, Michigan State University Syllabus, 1972.
2. Boman, T,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埴田重雄역), 東京:新敎出版社, 1959.
3. Brumbaugh, R.S, The Philosophers of Greece, New York:Thomas Y.Crowell, 1964.
4. ———, Plato for the Modern Age, New York:Corwell Collier Press, 1962.
5. Butler, J.D, Four Philosophies and Their Practice in Education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1.
6. Calivn.J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s, Vol. I. ed. by J.T.MeNeil, Phila:The Westminster Press, 1960.
7. Cornford, F.M.,The Republic of Plato, New York &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68.
8. Frank. E,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Religious Truth,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45.
9. Frazer, J.G, The Growth of Plato's Ideal Theory, New York:Russell & Russell, 1967.
10. Jaeger.W, Early Christianity and Greek Paideia.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11. ———, Paideia:The Ideals of Greek Culture.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Vol.I.1945. Vol. II.1943.
12. 久保勉, 國家篇, 東京:岩波文庫, 1949.
13. Nettleship, R.L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4. Royce, J.R., The Encapsulated Man, Princeton N.J.:D.Van Strand, 1964.
15. Shorey, P, The Unity of Plato's Thought Archon Books, 1968.
16. Stace, W.T, A Critical History of Greek Philosophy, New York:Macmillian, 1967.
17. Thorson, T.L, Plato:Totalitarian or Democrat?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Inc, 1963.
18. Winspear, A.D. The Genesis of Plato's Thought. New York:S.A.Russell, 1956.
19. Zeller, E, Outlines of the History of Greek Philosophy, New York:A Meridian Book, 1955.